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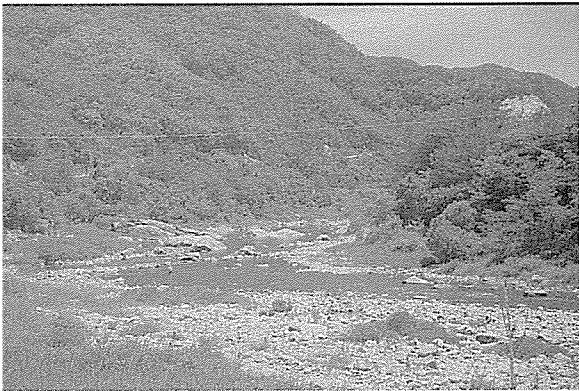
법흥사

##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 눈이 시리도록 푸른 서만이강과 주천강, 그리고 법흥계곡

글·사진 김 맑 음 (여행작가)

여름이 절정에 달하면서 너도나도 숲터를 떠나고 있다.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휴가 행렬은 올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는 휴가 문화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호젓하면서도 자연풍치가 뛰어난 휴가지는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 여기, 일에 지친 영혼들을 보듬어 줄 무릉도원이 있다.

온 산천이 개발로 멍들어 가는 이때, 진짜 무릉도원을 찾기로 쉽지 않다. 그래도 시간을 내어 살살이 찾아보면 좋은 여행지는 얼마든지 있다. 원주 외곽인 신림에서 영월로 가는 88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옆으로 소담한 강이 흐른다. 영월 주천강의 상류인 서만이강(서마니강, 섬안이강)이다. 서만이강은 치악산 서쪽 자락의 물줄기들이 모여 이루어진 큰 하천이다. 비가 자주 온 탓에 물줄기가 제법 세찬데, 알음알음으로 찾아온 알뜰 피서객들이 강을 따라서 나무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거나 반등을 들고 천렵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마을 옆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암소 엉덩이처럼 두루뭉실하게 곡선을 그으며 산을 맞잡고 돌아나간다. 그렇게 쪽 흐르기를 반복하다 어느 지점에서 강 안에 섬을 만들고, 섬 안에 강을 만든다. 이쯤 되면 '섬 안의 강'이라는 서만이강의 뜻이 마음에 와 닿을 법도 하다.



범흥계곡

서만이 강은 흐르고 흐르면서 술한 계곡들을 길러 놓았다. 그 중에서 엄둔계곡의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 20리 가까이 맑고 푸른 물이 굽이치는데, 작은 폭포와 깊은 못, 바닥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계류는 보는 이들의 가슴에 '시원함'이란 선물을 한아름 안겨준다.

이름을 단 모든 강물은 그 끝이 있게 마련. 온갖 사연을 싣고 흐르던 서만이강도 마침내 주천강과 합쳐지는데, 그 길 끝에 신선이 놀고 갔다는 '요선정'이 있다. 참으로 풍치 좋은 곳에 오두마니 서 있는 요선정(邀仙亭)에 오르면 발 아래로 그림 같은 서만이강이 펼쳐지는데, 앞산을 바라보면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오르는 학의 모습이다. 조선조 숙종이 이곳을 찾아 경치에 탄복해 시 한 수 남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조선 중기 때 양사언이 이곳 경치에 반해 큰 바위에다 '신선이 놀다간 자리'라는 뜻의 요선암(邀仙岩)이란 글자를 새겨 놓았는데, 지금도 흐릿하게 흔적이 남아 있다.


요선정은 경치도 뛰어나거니와 바로 옆에 복주머니 모양의 커다란 마애불이 새겨져 있어 신비감을 더한다. 이 불상 앞에 있는 작은 5층 석탑을 보건대 과거 절이 있었던 자리로 추측할 수 있다. 요선정 밑, 주천강변은 인적이 뜸하고 물이 맑아 캠핑하기에 최적지이다. 입장료는 없지만 폐기물 수거료로 어른 2천원, 어린이 1천원의 요금을 받는다.

평창군 태기산에서 발원한 주천강은 원주시 신림면에 들어서면서 서만이강, 영월군 주천면에 이르러서는 다시 주천강이 되고, 영월읍에 다다라서는 서강이 되었다가 영월읍 남쪽에서 동강과 만나 한강을 이룬다. 먼 옛날 물 대신 술이 흘렀다는 주천강(酒泉江)을 따라 두 개의 마을이 들어섰는데, 무릉리와 도원리다. 이 두 마을은 참으로 아름다워서 '무릉도원(무릉리와 도원리를 합친 이름)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주천강이 만든 범흥계곡길을 따라가 본다. 천년고찰 범흥사로 가는 길. 사자산 남쪽에 자리한 범흥사는 서기 643년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寂滅寶宮) 중 하나다.

정면 삼 칸 측면 두 칸의 팔작집인 적멸보궁에는 불상이 없다. 불단 뒤쪽으로 커다란 창만 뚫려 있는데, 이는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범흥사로 오르는 소릿길은 양쪽으로 숲이 우거져 운치 만점이다. 굳이 불자가 아니라도 숲 향내를 맡으며 걸어볼 만한 산길이다. 중간쯤에 있는 약수는 갈증을 달기에 좋고, 절을 에두른 높은 산봉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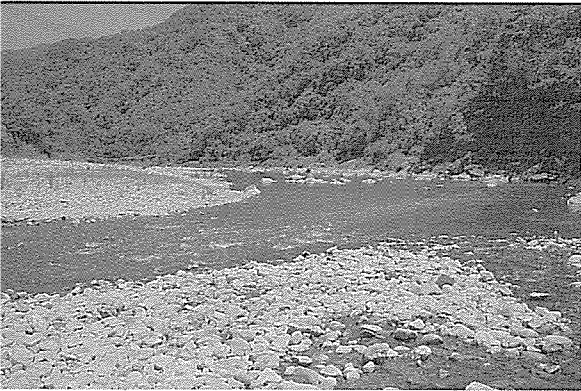


기상이 넘친다. 법흥사 앞을 가리고 있는 구봉대산은 아기자기한 바위봉 아홉 개가 줄줄이 이어져 있어 구봉대라고 불리는데 그 모습이 칼을 빼든 장군을 닮았다.

영월 주천리에서 무릉리를 지나 법흥사까지 이어지는 계곡이 법흥계곡이다. 찾길과 나란히 달리는 법흥천은 사암봉, 사자산, 백덕산 따위의 고산들이 에워싸고 있어 깊은 적막감마저 느끼게 한다. 물(1급수)이 맑다 보니 산천어, 열목어 같은 민물고기도 쉽게 볼 수 있고, 산그늘 아래 돛자리를 펴놓고 오후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도 꽤 많다.

주천면 소재지에서 영월 방향으로 계속 직진, 소나기재 넘기 전 선암마을 표지판 직전에 있는 영월책박물관에 들른다. 서울에서 호산방이란 고서점을 운영하던 박대현 씨가 지난 99년 폐교(여촌분교)를 개조해 만들었다. 빛바랜 교문을 들어서자 양쪽으로 들꽃들이 앙증맞게 피어 있다. 자그마한 운동장을 지나 교실로 들어서니 책의 향기가 물씬 전해온다. 전시실엔 '불운의 만화가' 송광용씨의 작품과 근·현대 각종 서지류와 유치진, 이승녕 같은 유명 작가, 학자들의 육필원고와 편지들이 진열돼 있다. 근·현대 교과서, 동화책, 계몽포스터, 영화 포스터도 눈길을 끈다. 특히 만화가를 꿈꾸며 영월중학교 1학년 때인 52년부터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만화일기를 써왔던 송광용 씨는 직접 제본한 두꺼운 만화일기가 101권에 달한다. 그런 송씨지만 굴곡 많은 삶을 살다 끝내 제 빛을 못보고 세상을 떠났다. 입장료로 초등학교생 1000원, 어른 2000원을 받는다. 유치원생 이하는 무료. 영월책박물관은 앞으로 광전리 골말 일대를 책마을로 꾸밀 계획이다.

책박물관에서 나와 소나기재를 넘는다. 영월읍 방면 38번 국도 소나기재 정상에 있는 '선돌'은 영월 여행에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돌로 짠 벌어진 바위가 아슬아슬하다. 선돌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 시간 여유가 있다면 단종의 능인 장릉과 유배지 청령포도 둘러 본다. 잘 단장된 장릉으로 들어서자 단종의 슬픈 이야기가 메아리 되어 들려오는 듯 하다. 하늘을 향해 키를 뻗은 소나무와 임금의 무덤은 참배객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단종이 유배생활을 했다는 청령포는 영릉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나룻배를 타고 청령포로 들어가면 먼저 그가 살던 집에 가볼 일이다. 백백이 들어찬 소나무며 왕이 쌓은 돌담, 그리고 노산대에 올라 굽이치며 흐르는 서강을 바라보면 찌든 몸과 마음이 씻은 듯이 행구어진다. 내친 김에 고씨동굴과 조선민화박물관, 김삿갓묘까지 둘러보면 영월 여행은 얼추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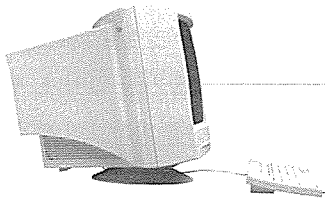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여름이 절정에 달하면서 너도나도 샴터를 떠나고 있다.  
호젓하면서도 자연풍치가 뛰어난 휴가지는 -  
여기, 일에 지친 영혼들을 보듬어 줄 무릉도원이 있다.

서만이강

**여행메모**

(지역번호 033) = 영동고속도로 만중분기점-중앙고속도로-신림IC-88번 군도-신림터널-황둔에서 좌회전-서만이강-섬안교-법흥계곡-요선정-법흥사. 법흥사에서 적멸보궁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법흥사-영월 방향 88번도로-주천강-신천리-당머루 휴게소-골말(영월책박물관). 책박물관-소나기재-선돌-장릉-청령포-고씨동굴-김삿갓묘-조선민화박물관. 영월역-장릉방향(88번도)-연당 삼거리-골말(영월책박물관). 제천-영월 방향(38번도)-연당 삼거리(88번도 좌회전)-골말(영월책박물관). 청량리역에서 영월까지 오전 8시부터 2-3시간 간격 하루 6회 무궁화호 운행. 3시간20분 소요. 동서울터미널에서 영월행 직행버스 하루 29회, 3시간 소요. 영월에선 군내버스 또는 택시 이용. 대전(경부)→청주(36번국도)→충주(38번국도)→제천(38번국도)→영월. 부산(남해지선)→내서IC(구마)→대구금호분기점(중앙)→제천IC(38번국도)→영월. 광주(88고속)→대구금호분기점(중앙)→제천IC(38번국도)→영월. 서만이강과 주천강 주변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과 민박집이 더러 있다. 안실광씨(374-9405), 신영준씨(372-1048), 신흥교씨(372-1069) 등이 민박집 운영. 법흥천을 따라 민박집들이 여럿 늘어서 있다. 민박집들은 대개 식당과 매점을 겸업하고 있어서, 식사와 숙박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숲속의 아침(374-0051), 황토와 통나무별장(374-2615), 대추나무식당(374-0034), 두메산골(372-1958), 법흥식당(374-8127), 사재식당(374-9109), 솔밭캠프장(374-9659), 우정민박(372-8226), 정든오토캠프장(372-1388), 중점식당(374-9170), 조목원매점·민박(374-9255), 영월읍과 주천면 소재지 여관 이용. 파크장(영월읍) 373-6110, 신라장(영월읍) 373-8771, 다래장(주천면) 372-9955, 주천모텔(주천면) 372-3588, 영월군 문화관광과(370-2226)와 영월군 관광안내(370-2620), 홈페이지(<http://gun.yeongwol.kangwon.kr>) 참조. 책박물관(372-1713, [www.bookmuseum.co.kr](http://www.bookmuseum.co.kr)), 민화박물관(375-6100)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